낯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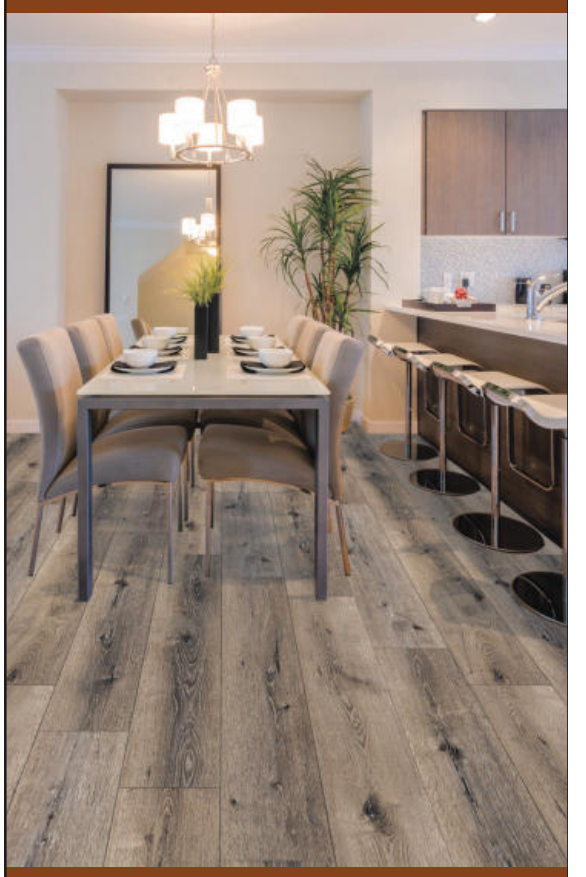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의 말은 꺼려지는 일처럼 어렵게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에겐 이상하리만큼 애를 써가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부터 네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웃을 수 있다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꺼내곤 한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잘하고 있으며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그래서인지 나를 위한 말은 어딘가 많이 낯부끄러운 일 같다. 그러다보니 누군가가 내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누군가가 없으면 세상이 곧 무너지기라도 할 듯 불안할 만큼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조금씩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생각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박수정의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른으로 산다는 것> 중에서

박수정
● 포토에세이 작가
● 저서: 〈어쨌거나 계절은 바뀌고 다시 돌아올 거야〉, 〈위로 받고 싶은 날에〉 등

대림 마루
모든 비지니스 상업용, 일반 주택, 신축건물 등등
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
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



특별세일
최고급 100% 방수 SPC
(제품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
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
무료견적 전화: 714.833.9944
12770 Florence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자연을 담은 풍기인견
인견사랑
인견은
경상북도 풍기 지방의 특산품으로 닥나무에서 축출한
식물성 실크 자연 섬유입니다.
피부에 좋은 건강 소재로 통풍이 잘되고
옷이 몸에 붙지 않아 시원합니다.
물세탁, 세탁기 가능합니다.
대박 세일 인견 마스크 판매

부에나파크 지점
(소스몰 2층 엘리베이터 앞)
Tel. (213) 800.1158
6990 Beach Blvd. #G202, Buena Park, CA 90621
오픈 시간 : 11:00am ~ 06:00pm
L.A. 지점
갤러리아 밍크의 집 내